

# ‘익사이팅 광주’ 구축 年 관광 3천만명 유치

### 市,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 유사축제 통폐합·행사 캘린더화 마케팅 강화 등 혁신 프로젝트 공유

민선 8기 광주시가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관광도시’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11일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주관광 혁신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시는 축제 도시 광주 조성 등 6대 중점과제를 선포하고, 현재 연 1500만명에 머무르고 있는 도시 이용인구를 오는 2026년 두 배인 30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가장 먼저 연중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축제 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잡고 기존 유사축제를 통폐합하는 한편, 축제·행사·박람회 연간 일정을 캘린더화하는 방식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비엔날레와 중장축제, 김치축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K-POP&K-컬처축제 등 광주 대표 5대 축제를 중심으로 계절별 그룹화하고 스토리도 입히기로 했다. 5월 봄 시즌에는 비엔날레와 시민의날, 프린지페스티벌 등 문화예술축제를 묶고, 6~8월 여름 시즌에는 스트릿컬처 페스타와 월드뮤직 페스티벌, 비어페스타 등 젊음의 축제를 선보인다.

10~11월 가을시즌에는 의향·미향·예향 등 ‘3향 종합축제’로 중장축제와 김치축제, 버스킹 월드컵, 푸드페스타 등을 연계한다. 12월 겨울에는 빛과 소망의 축제를 테마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축제 등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두 번째 중점 과제로 글로벌 MICE 유치와 관광 산업을 연계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할 광주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방문객들에게 시즌별 축제와 지역 대표 관광명소 등을 선보이는 방식으로, ‘관광객회’하겠다는 전략이

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스토리텔링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도 강화한다.

영산강(마한, 백제 역사문화권)과 양림동(기독교 선교 및 근대역사문화), 망월동(5·18), ACC(글로벌 교류, 아시아 문화 랜드마크) 등 광주 관광 스토리텔링 4대축에 각각 장소별 컨셉을 설정하고, 광주만의 정체성을 가진 공간과 연결하는 다양한 스토리 자원 발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신관광지 발굴과 관광 인프라 확충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일단 2025년까지 단기 과제로 선교사촌 양림 마을 정비, 역사문화관광벨트 투어길 조성,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영산강 익사이팅-무등산 생태관광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어 중장기 과제로 크리스마스 겨울축제 특화거리 브랜드, 영산강·황룡강 중심 관광거점도시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을 건립하고, 글로벌 MICE관광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제2전시장 건립되면 현재 연간 170만여명 수준인 마이스 관광객이 최대 300만 명까지 증가해 호남권 대표 마이스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광주 대표 관광상품(코스) 개발 및 브랜드,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다각적 홍보마케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관광여행 만족도(202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3위, 재방문 의향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추진중인 영산강·황룡강변 익사이팅존, 복합쇼핑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이 완료되면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단장 ‘뽕뽕다리’ 거닐어 보아요” 1960년대 방직산업 호황기때 광주 서구 양동 발산마을과 북구 임동 방직공장을 잇던 이른바 ‘뽕뽕다리’가 48년 만에 새롭게 단장되어 개통됐다. 11일 오후 시민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북 양식장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검증

###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폐사율 등 결과 따라 적용 품종 확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안도 보길면 백도리 해역 전북 가두리 양식장에 고수온·적조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연구에 착수했다.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제어로 가두리에 산소를 수시로 공급하는 장치다.

시스템을 설치한 시험구 124칸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 124칸에 양성 중인 전복을 조사해 어장 환경 분석, 성장도, 질병, 폐사율 조사 등 현장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최근 바다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내만의 경우 고수온 경보 기준인 섭씨 28도 이상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져 이로 인한 전복 폐사율 양식 어업인의 시름이 깊다.

이에 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안도지원은 올해 4월부터 1년간 안도 보길면 백도리 시험 어장에서 효과 검증을 위해 현장 적용 실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품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공공기관 구조혁신 본격화

### 조례안 시의회 통과 ... 市, 8월 목표로 통합 추진

광주시가 통폐합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해 제출한 조례안들이 시의회를 일괄 통과하면서, 구조혁신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공공기관 혁신 관련 조례안들을 모두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도시철도공사 설치 ▲경제고용진흥원 설립 ▲광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평생교육진흥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 등 7개 기관 관련 10건이다. 이로써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위한 입법화 과정은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8개 공공기관을 4개로 통합해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통합 기관은 광주 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테크노파크(테크노파크+과학

기술진흥원), 광주 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다.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기후 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인재 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은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인사, 재정, 보수 등 4대 분야 통일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8월 통합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하고, 공공기관별 경영 효율화 방안 등 자구책도 발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의 목표는 오직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민 편익을 높이는 데 있다”며 “시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자율과 책임, 효율과 역량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중동 현지서 관광객 유치 총력

### 두바이 국제박람회서 여행상품 협의...사우디 등 사전답사 계획도

전남도가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전남 신규 관광상품 출시를 협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답사를 계획하는 등 중동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박람회장에서 지난 4일까지 4일간 열린 중동관광박람회(ATM)에 참가해 현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중동국제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50여 나라의 여행업계와 관광 유관기관, 언론사 등이 참가해 홍보·판촉, 세미나, 문화공연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중동 최대 기업대기업간(B2B) 국제 관광박람회다.

전남도는 전남관광 홍보데스크를 운영해 빈센조, 더글로리, 호텔 텔루나, 파친코 등 케이(K)-드라마 촬영지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2023 국제행사 연계 관광상품

을 홍보했다.

또 4일 열린 ‘한국 관광의 밤’ 행사에서 각각 30여 여행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등 각 나라의 여행업계 관계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자연 자원, 축제, 음식 등 전남의 관광자원을 홍보해 여행상품 개발에 호응을 얻었다. 특히 US드레블, FNF코리아, 하킴드레블 등 함께 박람회에 참가한 중동 특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아시아·중동 친화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 가운데 FNF코리아는 올해 12월 전남 단독 럭셔리 관광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해 여행 비수기에 고부가가치 여행상품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현지 여행사인 알로스타마니, 알라이즈, 무사파, 리플렛과 공동으로 여수 해안 야경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대규모 홍보와 함께 신규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MUSICAL  
**광주**  
우리들의 사랑·명예·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2023.05.16(TUE) - 2023.05.21(SUN)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